

성남보호관찰소

○ 매체 : 로이슈(2026. 8. 28.)

○ 제목 : 성남보호관찰소, 재난대응 사회봉사 집행에 '구슬땀'

성남보호관찰소, 재난대응 사회봉사 집행에 '구슬땀'

침수 피해 지역인 '양재천' 일대 배수관 토사 제거 등 하천 정비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구 양재천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배수관 토사를 제거하는 등 재난 대응 활동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호우로 인해 양재천의 자전거 도로와 주민 산책로에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배수로가 막히고 특히 배수관에 토사가 쌓이면서 제기능을 못하게되자 서울 강남구 관계자와 공조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과 직원들이 서둘러 토사와 쓰레기 제거에 나선 것이다.

양재천 주변은 지역 주민들이 산책과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해 자주 찾는 곳으로 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도 호우 피해복구와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강남구청 수변조경팀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도 호우가 예보되어 있어 긴급히 요청했는데 신속히 동참해주신 성남보호관찰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해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지원과 고령농가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